사랑의열매

ISSUE 148
2019 AUGUST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눔태그

뜨거운 여름, 모두 시원하게 보내세요

숨 막힐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입니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주변에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더욱 힘든 이웃도 있습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혹서기에 취약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랑의열매를 소개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트는 선풍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자연스레 떠나는 여름휴가를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의열매 공식 SNS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0g

*7월 20~21일에 열린 'KBO 올스타전'에 사랑의열매가 함께했습니다.

gimyulhan

#사랑의열매 #kbo나눔올스타전 #창원엔팍

kang_ju_yeon

2019 ALL STAR GAME

#창원NC파크 #사랑의열매 #이벤트 #알랍뿌

okheeeee0412

비 덕에 볼 수 있게 된 #올스타전 경기 안 한다고 집중 못 하는 #엔린이 #최시은 좀만 기다리자.

#창원NC파크 #올스타전 #태풍안녕 #햇빛난다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나눔올스타

Beenbeen29

작년 울산에서 그 땡볕에 올스타전 보면서 내년엔 꼭 집 앞에서 더우면 집에 와서 에어컨 바람 쐬며 보리라 1년을 기다렸건만, 이렇게 비가 내려 내일로 연기한다니…. 사랑의열매 이벤트는 열었길래 얼른 참여함.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나눔올스타 #2019kbo올스타전

나눔 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Skyblue_kim

시원하게 딱 야구하기 좋은 날씨인데….

#야구 #취소 #올스타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나눔올스타 #창원 #창원NC파크마산 #육아스타그램 #딸바보 #태풍 #비 #우천취소 #롯데자이언츠

CONTENTS

04 함께하는 여름 나기

사랑의열매, 행복한 여름을 부탁해
PART 1 더위야 썩 물렀거라!
PART 2 얘들아, 방학 같이 보내자~
PART 3 물놀이 전에 잠깐! 안전이 제일

10 **커버스토리**
드림 티켓으로 만나는 NC다이노스 대표 3인방
원종현, 박민우, 루친스키 선수

14 **현장 스케치 1**
2019 KBO 올스타전

16 **현장 스케치 2**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18 **이슈**
사랑의열매 비전2030 공유회

20 **특별 대담**
양우엽 양스오일 코퍼레이션 회장

사랑의열매

vol. 148 2019 / 08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8월 / 통권 14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2 **착한기업**
나눔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효성

26 **땡큐 사랑의열매**
"베트남어로 동화 번역하며 한국 사회 배워요"

30 **착한일터**
동두천시청

34 **the BEST 착한가게**
광주를 지켜온 '더' 착한가게를 소개합니다

36 **열매톡톡**
사랑의열매 대학생 서포터즈 '열매톡톡' 4기 발대식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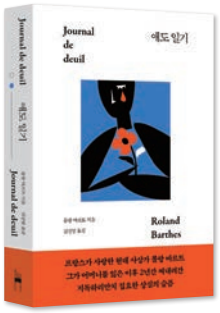
38 **장석주의 독서 처방전**
감정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40 **힐링 타임**
'볼매' 강원도로 놀러 오드래요~

44 **전국 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5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글 이선희 사진 서범세, 각 배분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사랑의열매, 행복한 여름을 부탁해

더운 게 당연한 여름이라지만 매년 반복되는 숨 막히는 찜통더위는 적응이 되지 않는다. 특히 무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여름은 혹독하다.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여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도록 도와준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여름 사업을 소개한다.

PART 1

더위야 썩 물렀거라!

사랑의열매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취약 계층을 위해 혹서기 대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올해는 홀몸 어르신, 거리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지원 대상 범위가 한층 넓어졌고, 관련 지원 사업도 좀 더 다양해졌다.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시원한 선물

서울 사랑의열매 혹서기 대비 지원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기 요금 폭탄'이 걱정돼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기기를 켜지도 못하는 폭염 취약 계층이 많다. 서울사랑의열매에서는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총 2억 원 상당의 냉방비를 6월부터 9월까지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96개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84개소),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37개소),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42개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지원해 459개소 1만 296명이 시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지원으로 거리 노숙인과 서울 지역 쪽방 주민 4,500명에게 2주간 생수를 지급했다. 일시 보호시설 6곳(다시서기, 구세군브릿지, 옹달샘, 햇살보금자리, 만나샘, 열린복지디딤센터)과 쪽방 상담소 5곳(서울역, 남대문, 영등포, 창신동, 돈의동), 28개의 자활 및 재활시설을 통해 더위를 달래줄 시원한 생수를 전달했다.

서울역 거리 노숙인에게 시원한 생수를 전달했다.

연천군 내 홀몸 어르신 집에 설치한 이동식 에어컨

국내 최초 이동식 에어컨 대여해주는

민·관·공이 함께하는 싱싱바람 여름 나기

경기 연천군에서 민·관·공이 협력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 대여 사업을 국내 최초로 진행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지정기탁금 4,000만 원으로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설치하고,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사에서 개별 가정 전기 요금을 일괄 고지한다. 연천군노인복지관은 각 가정에 에어컨 설치 및 회수, 보관·관리, 전기료 납부 등을 관리하며, 3개월 동안 에어컨 가동에 드는 전기료는 연천군에서 지원한다. 혹서기 외부 온도와 다를 바 없고, 단열 기능이 없는 슬레이트 구조의 가옥에 사는 홀몸 어르신 100가구를 선정해 이동식 에어컨을 7월부터 9월까지 설치하고, 10월에 회수한 후 내년에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도 주 1회 전화 말벗 및 안전 확인, 월 1회 혹서기 이동식 에어컨을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홀몸 어르신 안전 관리 매뉴얼도 함께 이루어진다.

지역사회의 '쿨'한 사랑이 담긴 5종 세트

쿨(cool)한 할매 할배 안녕한 여름 나기

경남 사랑의열매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여름 나기 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모금한 성금 2억 원으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도내 취약 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키트 제작에 나섰다. 그리하여 지난 7월 13일 진해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안녕한 여름 나기 쿨(cool) 키트' 2,000개 제작을 마쳤다. 쿨 키트는 집안 내 공기 순환을 통해 더위를 식혀주는 서큘레이터를 비롯해 쿨 스카프, 휴대용 선풍기, 쿨모자, 손편지까지 5종으로 구성했다. 키트를 제작하기 위해 도민 30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했다. 단순히 물품 포장에만 그치지 않고, 봉사자가 키트를 받는 어르신에게 보내는 손 편지를 써서 동봉하며 따뜻한 마음까지 전하고자 했다. 이렇게 완성한 키트는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도내 어르신 2,000명에게 전달해 시원한 여름 나기를 돕는다.

쿨 키트 제작에 정성을 다하는 봉사자들

맛있는 여름 김치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019년 여름 김치 나누기 행사

제주 사랑의열매는 '2019년 여름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에는 제주 도내 어려운 이웃 5,278가구에 1억 500만 원 상당의 여름 김치 3만 4,500kg을 전달했다. 김치 관련한 부식 지원은 대부분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제주 사랑의열매에서는 부식 지원이 취약한 여름에 김치를 지원하며 도내 어려운 이웃의 영양 증진과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5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 김치 나누기 행사는 지역에 따라 수행 기관이 다르다. 제주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가, 서귀포 지역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맡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과 손맛까지 전한다.

PART 2

얘들아, 방학 같이 보내자~

여름방학만 손꼽아 기다린 아이가 많다. 사랑의열매에서는 아이들의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해주는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시각장애인 자녀 등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떠나며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시각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여행

신나는 여름 가족 캠프

신한금융투자에서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이다. 시각장애인 부모가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진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신나는 여름 가족 캠프'를 통해 시각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했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시각장애인 18가구 66명이 강원도 강릉으로 캠프를 떠났다. 강릉 옥계해수욕장에서 해변 물놀이와 바나나보트 타기, 케이크 만들기와 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야외 활동을 진행했다. 가족이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등 사회적·심리적으로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돕는다.

떠나자! 갈매기와 함께 섬마을 일상을 향해~

인천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주공부방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20명이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문갑도에서 섬마을 일상을 체험했다. 집과 학교, 센터로 이어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갯바위 체험과 낚시, 물놀이 등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릉 옥계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캠프 참가 가족

조개를 잡으며 바다를 체험하는 아이들

1 3박 4일동안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아이들
2 제주도 조랑말 목장에서 진행한 승마 체험
3 지리산 노고단에 오르는 친구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 소중한 여행

제주에서 펼치는 희망날개

서울 사랑의열매의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두레민들레교실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35명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다양한 자연·사회·문화 체험을 했다. 아이들은 도깨비로, 표선 해수욕장 등을 방문해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만끽했다. 또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 잠수함 체험, 미로 체험 등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족 여행이나 기타 개별적으로 여행할 기회가 현저히 적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정서적 욕구 충족 등을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비행기를 탔을 때 너무 좋아서 마음이 붕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 4일 빠졌지만, 보람찬 4일을 보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힘이 났습니다. 일상이 활기찬 느낌입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많은 친구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 중등 2학년(유○○)

"넓게 펼쳐진 해수욕장이 멋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사투리를 가이드분을 통해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을 보면서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등 2학년(김○○)

함께 자라는 청소년이 걸어가며 음미하고 마주하는 여행

서울 사랑의열매의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친구네지역아동센터에서 떠나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청소년 13명과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지리산 종주를 했다. 출발 전날까지 태풍으로 입산이 통제됐다 당일 개방되고, 안개에 휩싸이고, 몇 명의 등산화 밑창이 떨어져 압박붕대로 칭칭 감으면서 힘겹게 산행을 했다. 하지만 산행 삼일째 다행히 안개가 걷혀 굽이굽이 산을 타고 넘는 구름바다를, 누구나 품어줄 것처럼 포근한 지리산 능선을, 서울 하늘에선 볼 수 없는 쏟아지는 별과 떨어지는 별을 만날 수 있었다. 등짐을 메고 걷고 또 걷는 게 힘들어 종주를 포기하고 싶었던 아이들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 얼굴 가득 웃음이 차올랐다.

PART 3

물놀이 전에 잠깐! 안전이 제일

계곡, 바다, 수영장 등 물놀이가 흔한 계절이다. 하지만 시원하고 재밌는 물놀이도 '안전'이 필수다. 사랑의열매는 그룹홈 아동과 농어촌 아동을 위한 안전한 물놀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 교육과 생존 수영을 배우는

언제나 안심

삼성 에스원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그룹홈 아동의 물놀이 안전 인식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안전 교육 지원 사업이다. 사업은 크게 '안전알림이'와 '안전지킴이'로 나뉜다. 안전알림이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그룹홈 아동이 안전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 포스터, 표어, 영상 등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렇게 제작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안전알림이를 통해 우수 참여 아동 25명에게는 생존 수영 교육비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했다. 언제나 안심을 통해 아동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주최자로 거듭난다.

모(母)·여(閭)·락(樂)의 마을 축제 '물놀이'

모여락은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내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방임 제로(zero)를 위한 맘코칭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마산초등학교와 해운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화성 해운초등학교에서는 모여락의 놀이 프로그램인 마을 축제 '물놀이'를 진행했다. 물놀이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물놀이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그다음 천연 잔디 운동장에 설치된 간이 풀장에서 전교생 47명은 물놀이, 물총놀이, 낚시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왼쪽부터)
NC다이노스
루친스키, 박민우,
원종현 선수

드림 티켓으로 만나는 NC다이노스 대표 3인방 원종현 · 박민우 · 루친스키 선수

“야구를 통해 함께 꾸는 꿈, 우리 모두의 홈런입니다!”

지난달 올스타전 경기가 열린 창원NC파크에서 NC다이노스 대표 선수 3인방을 만났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웃과의 만남에 열과 성을 다한 선수들은 야구야말로 함께 꾸는 꿈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남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착한기업 ‘NC다이노스’ 야구단 이야기다.

올스타전 선발 출전 선수이던 NC다이노스의 대표 얼굴 3인방 원종현, 박민우, 드루 루친스키 선수를 만났다. 태풍이 예보된 궂은 날씨였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선수들에게 경기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스케줄을 진행한다는 건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사랑의열매와 만났다.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이웃들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다면서 말이다.

“나눔이나 봉사를 어떤 것이다라고 거창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저도 크게 아파봤고, 야구가 잘 안 풀린 적도 있었죠. 그렇게 제가 힘들어 봐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해요. 그래도 끝까지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멋진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포기하지 말자고 서로 응원하는 것부터가 나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일을 겪을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간다는 원종현 선수의 말에는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의 묵직함이 담겨 있었다. NC다이노스는 경남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착한기업이다. 또 경남 사랑의열매와 함께 기부 티켓 제도 ‘드림(Dream) 티켓’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 티켓은 NC와 다이노스를 사랑하는 팬들이 기부를 통해 스포츠 문화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야구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드림 티켓으로 꾸는 꿈

드림 티켓은 3루 내야석 좌석을 구매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좌석은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경남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 기관 및 개인에게 전달한다. 단 한 번도 야구 관람을 하지 못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드림 티켓을 통해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특별한 경험

> “NC다이노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자 유일한 미션은 바로 야구를 통해 많은 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선물한 사인볼은 사랑의열매 장외 부스 이벤트 선물로 증정했다.

1

을 했다. 그중에는 야구 관련한 꿈을 꾸거나 이룬 친구도 있을 터. NC다이노스 박중언 홍보매니저는 "우리 구단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자 유일한 미션이 바로 야구를 통해 많은 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아주 영광된 의무라는 사실을 구단과 선수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참여와 반응이 적극적이라고. 개인적으로 기부나 봉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구단의 활동에 홍보대사로 나서서 나눔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잖아요. 저는 야구 선수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언제나 감사해요. 또 선수들 모두 어떻게 하면 응원해주시는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다면 서로 나오려고 하는 편이에요.(웃음)"

귀여운 마스크의 소유자 박민우 선수는 늘 힘든 순간과 싸워야 하는 야구 선수야말로 꿈과 희망이 간절한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응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힘든 순간이 더 많은 야구

NC다이노스의 대표 얼굴로 나선 원종현, 박민우, 루친스키 선수는 "야구는 힘든 순간들과 싸워나가는 스포츠 그 자체"라고 입을 모았다. 기쁘고 좋은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맛보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이 8할 이상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어려서부터 축구·야구 다 했고, 운동이란 운동은 다 좋아했어요. 그러다 아버지 권유로 야구를 선택했죠. 운동은 그 자체로 경쟁이에요. 매 순간 승부해야 하고, 부상은 치명적이죠.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시련을 겪어요. 하지만 그 시련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죠. 그런 선수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원종현 선수는 견뎌내는 것도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면서 이기고 지는 주변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옆에서 동료들의 인터뷰를 듣고 있던 루친스키 선수도 한마디 했다.

"야구를 하는 제 인생도 늘 도전이었죠. 세상에 쉽고 재밌는 도전은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실패

할 확률이 더 많죠. 하지만 저는 도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고, 또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에요!"

낯선 땅에서 큰 도전 중인 루친스키 선수가 한 말이어서 그랬을까, 극복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말이 진실하게 다가왔다. 박민우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부상으로 첫 수술을 했을 당시를 가장 힘든 시기로 꼽았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야구를 영영 하지 못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기 때문이라고.

더 자주, 더 많이 만나고 싶다

경남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많은 이웃을 야구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NC다이노스 야구단은 기회가 된다면 더 자주, 더 많이 팬들과 만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운동으로 바쁜 소속 야구 선수들도 구단을 통해서나마 사회 공헌 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혹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한다. 착한기업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NC다이노스의 구단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터뷰에 응해준 선수들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또 어떤 응원의 한 마디를 남기고 싶을까 궁금했다. 선수들은 팬에게 선물할 사인볼에 정성스럽게 사인을 하면서 답했다. 먼저 박민우 선수는 "이범호 선수 은퇴식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야구로 인정받고 훌륭한 선수로 멋지게 퇴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종현 선수는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것보다 야구 자체를 즐기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야구를 즐기고 싶다"고 했다. 루친스키 선수는 "좋은 시간과 힘든 시간이 있는 인생은 노력하는 자체로 성공"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드림 티켓으로 더 많은 친구를 야구장에서 만나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NC다이노스 박중언 홍보매니저는 "야구단 자체가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드림 티켓을 시작으로 사랑의열매와 함께 보다 많은 나눔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따뜻한 포부를 밝혔다. 처음부터 끝까지 훈훈한 모습을 보여준 NC다이노스 야구단 사람들, 그들이 응원하는 꿈에 큰 박수를 보낸다.

1 구단을 대표해 사랑의열매와 만난 박민우, 원종현, 루친스키 선수.
2 NC사랑나눔의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애국가 제창 모습
3 드림 티켓으로 야구 관람한 더불어하나회 부설 꿈사랑학교

2

3

1

2

3

4

2019 KBO 올스타전

시끌벅적 사랑의열매 장외 부스 현장 타임

창원NC파크에서 2019 KBO 올스타전이 개막됐다. 특히 관람객을 위해 공식 후원사들이 준비한 '올스타 팬 존'에서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사랑의열매 장외 부스 현장은 인기 만점이었다. 남녀노소 모두 사랑의열매를 즐긴 현장 타임!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창원NC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19 KBO 올스타전'은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퓨처스 올스타전이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20일과 21일로 연기되며 뜨거운 축제의 열기를 이어갔다. 비가 그친 창원NC파크 주변은 올스타전을 즐기러 온 전국의 야구팬들로 북적거렸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는 올스타전 경기뿐 아니라 홈런 레이스 예선, 선수·팬·구단 마스코트의 계주 경기인 슈퍼레이스, 퍼펙트 피처 등 올스타전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전 행사를 진행해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공식 후원사들이 장외에 준비한 이벤트 부스부터 캐리커처 전시, 배팅 체험 존, 그리고 창원 지역 인디 밴드 공연까지 다채롭게 펼쳐졌다. 그 가운데 사랑의열매 장외 부스 행사는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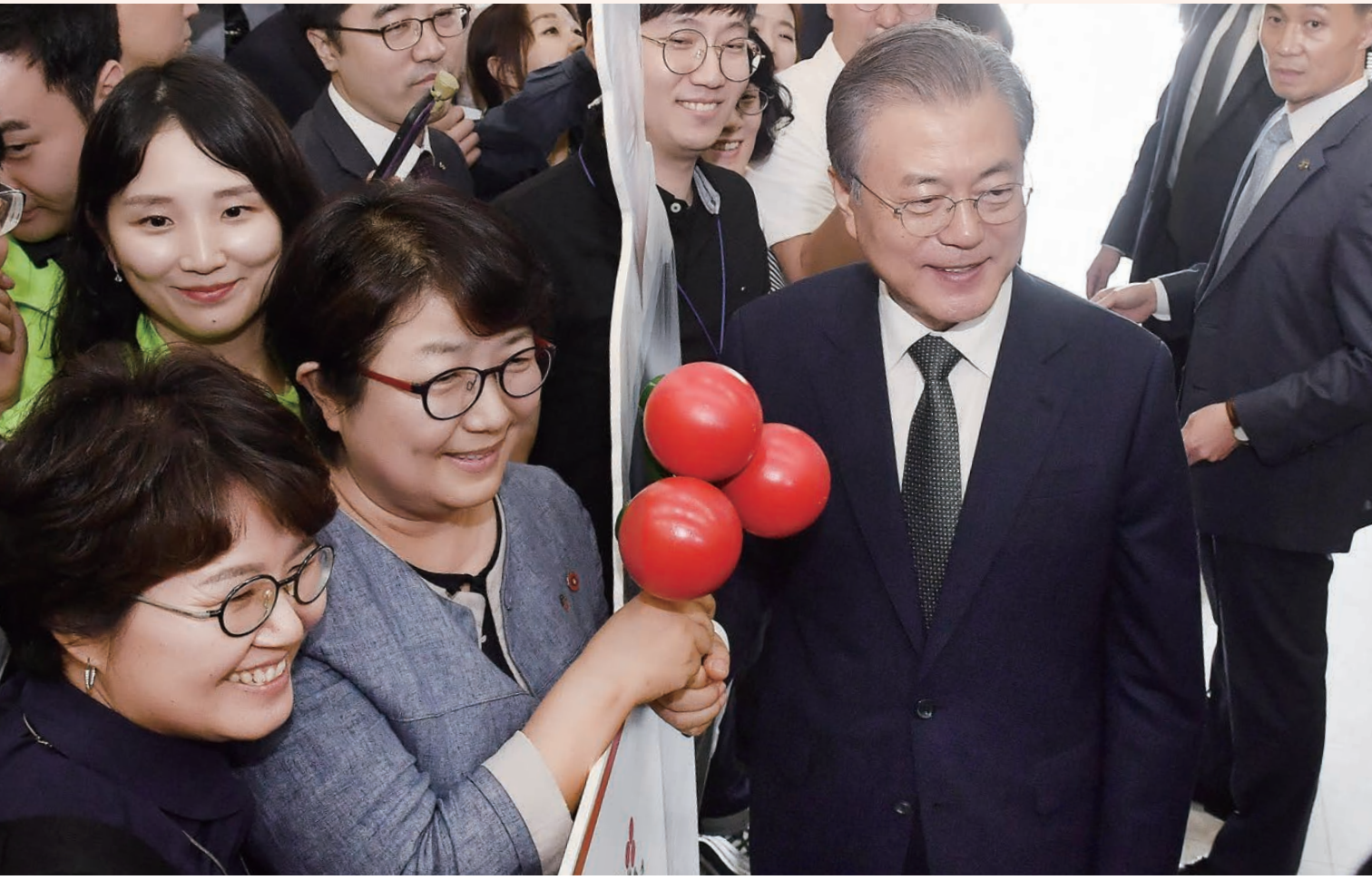
축제 현장에서 만난 사랑의열매

자칫 엄숙하게 느껴지기 쉬운 나눔문화를 축제 현장에서 만난 관람객은 '나눔'이 즐겁게 다가왔다. 빨간 티셔츠를 맞춰 입은 사랑의열매 직원들은 저마다 사랑의열매 기념 부채나 머리띠를 하고 분위기를 북돋웠다. 장외 부스 안에는 나눔리더, 아너 소사이어티,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나눔 존에서는 방문자가 나눔이란 무엇인지 정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행복과 기쁨, 감동과 보람, 배려와 재미 등의 키워드로 분류한 이 코너는 자녀와 함께 방문한 부모의 반응이 특히 좋았다.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참여한 코너는 사랑의 골든글러브 존이었다. 사랑의 골든글러브란 KBO와 사랑의열매가 1999년부터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을 제정해 매년 선행에 앞장서고 나눔을 실천하는 선수 또는 구단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골든글러브 존에서는 역대 사랑의열매 수상 선수와 단체를 소개하면서, 나눔 올스타 선수와 구단에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랑의열매 핸드 페인팅, 올스타전 포토 존 등 이벤트를 운영하고 부채와 배지 등 기념품을 배포했다.

나눔, 이제 즐겨요!

사랑의열매는 한국야구위원회와 올해 6월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 사랑의열매가 외부 기관과 사회 공헌 협약 외에 문화 홍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식에서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국민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 나눔문화를 좀 더 가깝고 생동감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 협약 계획의 일환 중 하나가 올스타전을 통한 사랑의열매 홍보 부스 운영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선보인 것. 홍보 부스를 찾은 한 관람객은 "야구장에서 사랑의열매 행사 부스를 만날 줄은 몰랐다"면서, "TV나 방송에서 보던 사랑의열매가 가깝게 느껴졌다"고 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눔이란 무겁고 엄숙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즐기는 일상의 한 부분이란 것을 강조했다. 관람객 누구나 기부자가 될 수 있으며, 나눔의 기쁨을 즐길 권리를 지녔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응원했다.

1 7월 21일 열린 올스타전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2**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학부모 관람객은 사랑의매 부스에서 나눔 교육을 하기도 했다 **3** 사랑의열매 상징 로고를 이용한 다양한 기념품 중에서 머리띠는 여자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였다 **4** 어린이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사랑의열매 직원 **5** NC구장을 찾은 야구 마니아 남매 **6** 방문자들에게 가장 인기있었던 스티커 붙이기 **7** 사람들로 가득 찬 사랑의열매 부스



박람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왼쪽에서 두 번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모든 것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이하 박람회)가 대전 컨벤션센터 ·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민관 공동으로 열린 이번 통합 박람회에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도 함께 자리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금, 사회적경제를 총망라한 이번 박람회에 많은 이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보다 참여폭 크게 확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주목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 불평등, 공동체 약화 등 사회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또한 그간 여러 부처에서 열린 행사를 하나로 합쳐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란 이름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Tomorrow), 함께 꿈꾸는 내 일(My Job)을 통해 모두의 내일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지난해에 비해 사회적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종교계, 공기업, 대기업 등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가치관을 별도로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이 외에도 상품·체험 존에는 사회적 기업&소셜

벤처, 마을 기업, 소상공인협동조합, 자활 기업, 사회적 농장, 크라우딩펀딩 존, 협동조합까지 7개 범주에 따라 부스를 꾸몄고, 전시관에는 공공 기관 상담관, 정책홍보관 및 대전광역시관 등이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에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며 사회적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확충, 금융 지원 확대,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적 경제인의 노력이 보람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사랑의열매가 사회적경제를 만났을 때

사랑의열매는 공공 기관 상담관에 홍보 부스를 설치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사랑의열매가 참가한 것을 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터. 이에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이미 많은 사회적경제 기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에서는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 모색하던 중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 참가했습니다"며 참가 이유를 밝혔다.

박람회 홍보 부스에는 사랑의열매를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스 한쪽에 미션과 비전, 4대 전략 목표와 20대 전략 과제 수립을 상세히 담아 앞으로 사랑의열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모인 기부금을 어떤 계층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리해놓은 사랑의열매 배분 사업과 아너 소사이어티 등 사랑의열매 기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홍보 부스에는 약 3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추산한다. 한 관람객은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사람들만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

요. 그런데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달리 보이네요. 또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며 관람 소감을 남겼다.

사랑의열매 직원들은 틈틈이 박람회를 둘러보며 사회적경제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요한 택시', 우리 밀로 쿠키와 빵을 만들어 여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대전 마을 기업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 등을 보며 사랑의열매가 그들과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김연순 사무총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된 박람회였습니다. 앞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며 박람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큰 공부'를 한 사랑의열매가 앞으로 사회적경제와 어떻게 만날지, 또한 그 만남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된다.

1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가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과 직원들
2 박람회에는 남녀노소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
3 박람회 전시관 중 사회적경제&가치관 내부 모습

사랑의열매 비전2030 공유회

전국 방방곡곡 비전을 알리GO~ 소통을 나누Go~

지난해 재정립한 미션과 비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사랑의열매 비전2030 공유회'를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차례로 진행했다. 그 중 지난 7월 17일 강원 사랑의열매에서 열린 비전공유회에 참석했다. 2시간 넘는 동안 강원 지역시민사회와 벌인 열띤 토론을 현장 중계한다.

'사랑의열매 비전 2030 공유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사랑의열매는 지역단체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강원, 제주, 대구, 전북 사랑의열매

발로 뛰며 공유하는 새로운 비전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사랑의열매 직원은 물론 수행 기관, 전문가 그룹 등 2,000여 명이 모여 혁신을 위한 '비전2030'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재정립한 미션과 비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했다. 그 시작점이 사랑의열매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역 단위 소통 프로그램 '비전2030 공유회'(이하 공유회)다. 공유회를 통해 사랑의열매가 직접 지역 기반의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비전2030 내용을 알렸다. 또 그들의 고민과 필요 등 현실적인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했다.

공유회는 6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경기, 제주, 대구 등 사랑의열매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 열린 강원 지역 공유회에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활동 중인 지역 단체 소속 13명과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최은숙 전략기획본부장을 비롯해 강원 사랑의열매 직원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김연순 사무총장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복지 전달 체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복지환경에 맞춰 사랑의열매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지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성과 제시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런 거버넌스의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라며 공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사랑의열매 미션과 비전, 4대 전략 목표(• 나눔 참여 인프라 확대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성과 제시 강화 •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 • 변화 주도 조직 운영)와 20대 전략 과제 중 5대 혁신 과제(• 지역사회 나눔 생태계 육성 • 소액 다수 기부 활성화 • 의제 기반 사회문제 해결 강화 • 배분 행정의 혁신 • 시민 참여 활성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다

그동안 사랑의열매는 환경 복지를 위해 바다 환경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나 청년 복지를 위한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랑의열매는 앞으로 기존의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복지 패러다임에서 한층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았다. 이번 지역 공유회에 사회복지 기관이 아니라 환경, 여성, 사회적경제,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단체가 참석한 것도 사회복지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강원 사랑의열매에서 열린 강원 지역 공유회 진행 모습

사랑의열매 비전2030 주요 내용을 들은 지역단체들은 다채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모습을 격려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전하며 사랑의열매에서 새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사랑의열매 지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스스로 지역 내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역민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지역 중심으로 사업 체계가 구축된다는 의견과 지역사회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사랑의열매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가장 많이 언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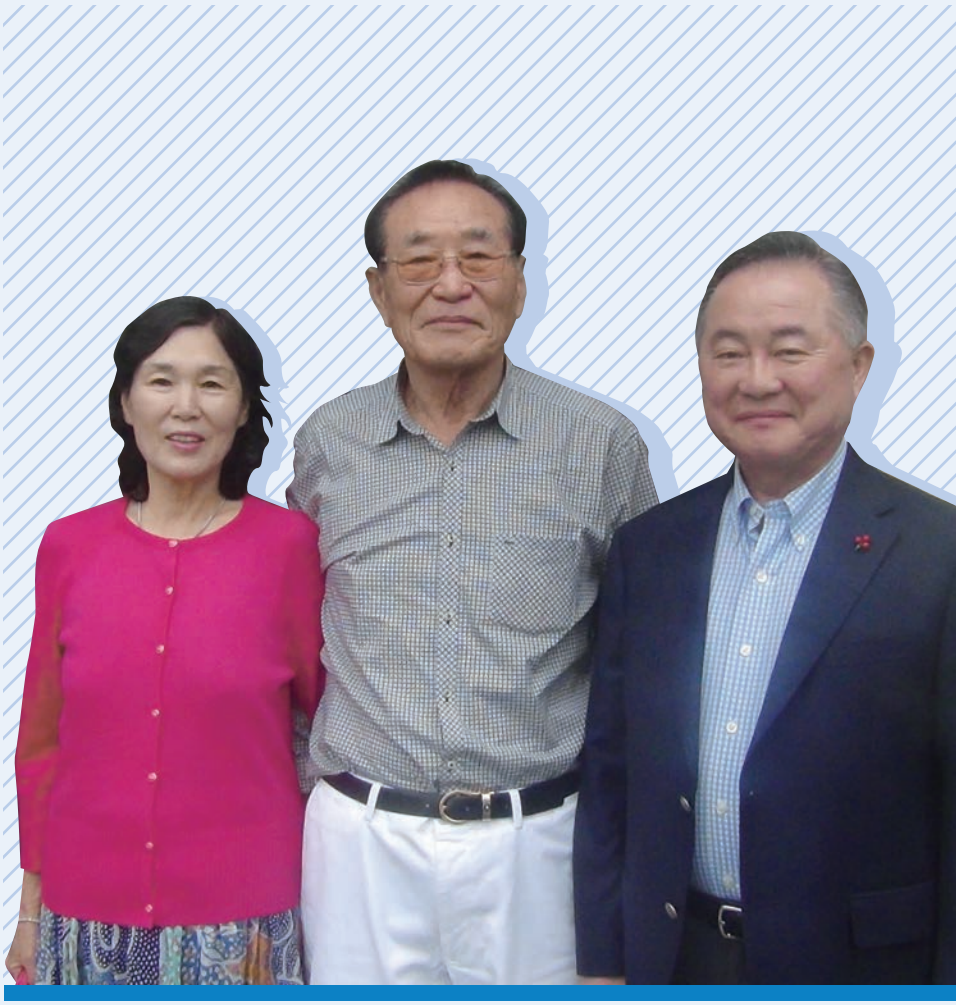
공유회를 마친 후 사랑의열매 혁신사업팀 김진곤 팀장은 "우리가 다양한 시민사회를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를 활발히 만나야 함을 강조했다. 사랑의열매 직원들은 공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며 자신의 업무와 어떻게 연계할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단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서로 의논하며 강원 지역 공유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20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행보에 나섰다. 아직까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종석 회장이 만난 미주 동포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리더

어려운 대학생과 비영리 기관을 지원하며 동포 사회를 발전시키는

양우엽 양스오일 코퍼레이션 회장

"제 인생 3막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돕는 '나눔드림'을 성공시키는 시간입니다."



대담 후 기념사진을 찍은 (왼쪽부터) 양우엽 회장의 아내, 양우엽 회장,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사랑의열매는 아시아 지역의 교두보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재외 동포의 다양한 기부 욕구에 부응하고, 동포 사회에 선진적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미주 한인이 밀집해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나눔문화를 선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인 기업가를 직접 만났다.

양스오일 코퍼레이션 양우엽 회장은 한인 사회에서 훌륭한 인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다. 거기에 후덕한 인상과 구수한 말솜씨까지 갖춰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오늘날 자신의 성공은 여러 귀인의 덕분이었다며 겸손한 말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이다. 양우엽 회장과 대담을 마친 후 예종석 회장은 양 회장을 "후대의 귀감이 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 표현했다.

로스앤젤레스 양스오일 코퍼레이션 양우엽 회장(80)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1969년 태권도복을 둘러멘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여러 나라를 돌며 태권도를 보급하다가 1980년대 초 호주 전역에 태권도장 40여 곳을 운영하며 그곳에 정착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태권도가 지겨워져 서둘러 도장을 처분한 후 1986년 미국 땅을 밟았다.

예종석 **미국에 오시기 전 여러 나라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는 데 힘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양우엽 태권도는 전주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배웠어요. 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중앙공업연구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죠. 우연히 지인을 만나면서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고,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1969년 태권도복을 둘러메고 훌쩍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저의 인생 유전이 시작되었지요. 호주, 홍콩,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을 돌며 태권도를 보급했습니다.

예종석 **당시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다.**

양우엽 처음 태권도 보급에 나섰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태권도를 몰랐어요. 그러니 배우겠다는 이도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우러 오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사실 태권도 보급이 어렵다기보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서 너무 외로웠죠. 1980년대 초 호주에 정착하면서 열심히 태권도를 보급했습니다. 호주 전역에 도장을 40곳이나 열어 운영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배우는 운동이 되었죠.

예종석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을 떠났듯, 호주도 훌쩍 떠나셨더라고요.**

양우엽 어느 날 갑자기 태권도가 지겨워져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서둘러 도장을 처분하고 1986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지요. 지금 다시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인생 2막이 시작되던 시점 같습니다. 제 인생 1막은 태권도, 2막은 주유소였던 거죠.

예종석 **태권도 다음이 주유소 사업이라니. 의외의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양우엽 미국에 도착해서 뭘 할까 고민하던 중 주유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침 제 전공이 화학공학이기도 해서 별 고민 없이 잉글우드의 한 주유소를 2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4·29 폭동 등 시련이 있었지만 2000년에는 LA는 물론 오렌지카운티와 베이커즈필드, 버뱅크 등지에 도합 20곳의 주유소를 운영했을 정도로 사업이 잘됐습니다. 지금은 모두 처분하고 2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종석 **미주 청도관 총연합회 회장을 맡아 젊은 후배들을 돕고, 전주고와 한양대 동창회장으로 교포들을 위한 활발한 사회 활동에 힘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업가보다 한인 사회 리더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양우엽 인생 1막은 태권도로 '오스트레일리언 드림'을, 인생 2막은 주유소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3막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오느라 미처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겠죠.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종석 **다양한 나눔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던데,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양우엽 과거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듯, 저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LA는 제가 이민 초창기 삶의 터전이던 곳이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LA 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종석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회장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이신지요?**

양우엽 인생 2막에 이어 인생 3막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 인생 3막은 장학 사업과 비영리단체 지원 등을 하며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나눔드림'을 이루고 싶습니다.

양우엽 회장은

- **소속** 양스오일 코퍼레이션 회장
- **학력** 전주고등학교,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 **수상** 2009년 제2회 한양경영대상 경영인
- **경력** 중앙공업연구소

나눔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효성

“이웃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최고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에서 효성(曉星)은 나눔과 상생을 기업 경쟁력으로 꼽았다.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사회 공헌 슬로건대로 취약 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호국 보훈을 3대 과제로 꼽고 한국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이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효성은 그룹명의 뜻인 ‘샛별’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밝은 빛을 내고 있었다.

효성은 취약 계층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눔의 순환이 필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나눔이 꼭 필요한 이유다.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취약 계층을 위한 후원과 의료 봉사 활동, 급여 나눔부터 문화·예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효성의 사회 공헌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 후원도 단순히 인프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교육 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효성의 노력은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들과 항상 함께한다.

베트남 여학생이 미소원정대 무료 진료소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다.

1 효성은 매년 연말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2** 미소원정대 의료진이 베트남에서 초음파검사를 하고 있다. **3**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자립을 돕는 대표적 사업이다. **4**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미소원정대.

취약 계층 자립 지원

"낮은 곳에서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효성은 사랑의열매와 함께 베트남 무료 진료 사업인 '미소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수행 기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011년부터 8년째 꾸준히 이어져온 미소원정대 활동을 통해 1만 2,000명 이상의 베트남 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베트남 사업장 인근의 동나이성 롱토 지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진행했는데, 총 3,268명이 미소원정대의 도움을 받았다. 미소원정대는 이번 진료를 위해 강남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및 스태프 27명과 자생한방병원 의료진 6명 등 전문 의료 인력 33명과 함께했다. 해마다 진료 과목을 확대해 좀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진료 성과도 적지 않다. 그동안 진료 중에 발견한 골절 합병증 환자와 두개골 함몰 환자 등 고위험 환자를 한국에 초청해 수술비 전액을 지원했으며, 매년 신체검사를 통해 시력이 낮은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안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심장 질환이 우려되는 환자를 위해 현지에서 심장 초음파검사도 실시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진료 봉사를 펼치고 있다.

효성의 '취약 계층 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은 자립을 돕기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사랑의열매는 2013년부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여성 가장, 기초수급대상자, 중고령 여성 등 취약 계층 여성을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 해결책이 된다. 급식 조리 전문가, 사회복지 실무자, 돌봄 교사, 기업의 ERP 물류사무관리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동안 약 200명의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양성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전담 직업상담사가 정기적인 취업 상담과 구직 정보를 제공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연말 이웃 돕기 성금도 빼놓을 수 없다. 효성은 2003년부터 사랑의열매에 성금 기탁을 시작해 16년 연속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난해에도 (주)효성,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 5개 회사가 함께 마련한 이웃 돕기 성금 10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으며, 올해 고성과 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에도 이재민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조현준 회장은 "이웃과 환경은 효성과 함께 크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사회적 약자들과의 나눔은 물론 환경지킴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후원

"문화·예술이 꽃피는 일상을 위해"

효성그룹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취약 계층도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발달·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 챔버' 단원들은 효성의 후원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이들은 1999년 5월 온누리교회에서 설립한 오케스트라로, 현재 80여 명의 장애 아동·청소년 단원이 연 50회 이상 국내외 순회 연주를 하고 있다. 효성은 단원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계적 첼리스트 요요마가 이끄는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 단원들에게 직접 연주 지도를 받는 티칭 클래스 시간도 있다. 이 특별한 시간은 효성의 나눔봉사단장인 조현상 총괄사장이 오랜 친분이 있는 요요마에게 제안해 시작한 것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요요마 티칭 클래스'는 단원들이 가장 의미 있게 꼽는 행사 중 하나로, 음악 꿈나무와 거장의 만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효성그룹은 '효성 컬처 시리즈'의 일환으로 2년마다 티칭 클래스를 열고 장학금과 악기 구입, 연주회, 음악 캠프 운영 등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의 미술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장애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장애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효성은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장애 예술가의 창작 지원비와 전시 비용 등을 후원하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이다. 매년 입주 공모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 장애 예술가 12명을 선발해 스튜디오 내에 입주 공간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100여 명의 실력 있는 장애 예술가를 배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강남미술관에서 장애 예술가의 작품 전시회 〈흐르는 흐름〉展을 개최해 작품 활동의 결실을 선보였다. 효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결과 멋진 작품을 선보인 것이다.

효성은 우리 전통문화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창덕궁 등에서 임직원이 환경 정화 활동을 벌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킴이' 기업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2017년부터는 재단법인 아름지기, 문화재청과 MOU를 체결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의 희정당(熙政堂)과 대조전(大造殿) 전등 복원 사

1

2

3

1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에게 연주 지도를 받는 온누리 사랑 챔버 단원들
2 창덕궁 희정당과 대조전 복원 후원으로 100년 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3 장애 예술가 후원으로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한다.

전통과 현대의 미가 조화를 이룬 창덕궁 희정당 내부 모습

참전 유공자를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으로 국방부의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업을 후원하고 있다. 임금과 왕비의 생활 공간인 희정당과 대조전 내부를 100년 전 모습으로 정비하고, 변형되거나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물 제815호인 희정당은 임금의 공간, 대조전은 왕비의 생활 공간이다. 1917년 갱의실(오늘날의 탈의실)에서 불이 번져 소실되었고, 1920년 경복궁의 자재를 모아 재건했으나 복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성의 후원으로 샹들리에, 카펫, 유리 창문 등 조선 후기 모습을 복원해 건립 100주년을 맞는 2020년에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희정당과 대조전의 복원에는 샹들리에 세척과 보존 처리, 전기 설계와 배선 등 본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한 조명 설계와 정밀한 세공과 보수 작업이 수반된다. 이를 위해 한국 전통 매듭과 다회 장인, 전통 직물 연구소, 조명 전문 회사, 문화재 보존업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이 함께한다. 희정당은 밖에서 볼 때는 창덕궁의 여느 건축물과 다르지 않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응접실과 회의실, 전통 창호 대신 유리 창문과 서양식 의자 그리고 탁자 등 마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다.

호국 보훈 후원

"민족의 혼, 용사를 기리다"

효성은 사업 보국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많은 희생을 감내한 애국지사를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 다양한 호국 보훈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의 주거 의전과도 같다. 선별한 참전 용사들의 집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현재 13만여 명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가 생존해 있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은 86세로 모두 고령이다. 게다가 참전 용사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효성은 이에 따라 육군본부가 추진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활동을 2012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는 미국에서도 이어진다. 효성USA가 위치한 앨라배마주는 한국전쟁 참전 퇴역 군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매년 미국 참전 용사 초청 행사가 열린다. 효성USA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연합군으로 참전한 미군 3만 6,000여 명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참전 용사와 가족을 초대하고 있다. 이 행사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효성이 2013년에 처음 시작해 6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참전 용사 62명과 그 가족 130여 명, 총 190여 명을 초청했다. 효성USA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넓히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앨라배마 주립대 한국어 교육과정에 장학 기금도 지원하고 있다.

호국 보훈에 대한 예우는 사후에도 계속된다. 효성은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헌화, 묘비 닦기 등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이 작업은 2014년부터 국립서울현충원과 1사 1묘역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연 2회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효성이 담당하는 9묘역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및 경찰관 총 627위가 안장된 곳이다. 충청 지역 사업장(세종·옥산·대전 공장)과 구미 공장 임직원들도 각각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묘역 주변을 정리한다. 사람과 문화, 나라를 사랑하는 효성의 마음은 지금도 한결같다.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온 효성의 나눔은 어둠 속의 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나눔과 꿈

청소년희망플랫폼

“베트남어로 동화 번역하며 한국 사회 배워요”

**청소년희망플랫폼의 ‘도란도란’은 결혼이주여성이 경계존중교육 그림책을 번역하는 프로젝트다.
첫 시작으로 경계존중교육의 대표 서적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있다.
한국말도 서툴고 문화도 다른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 번역 작업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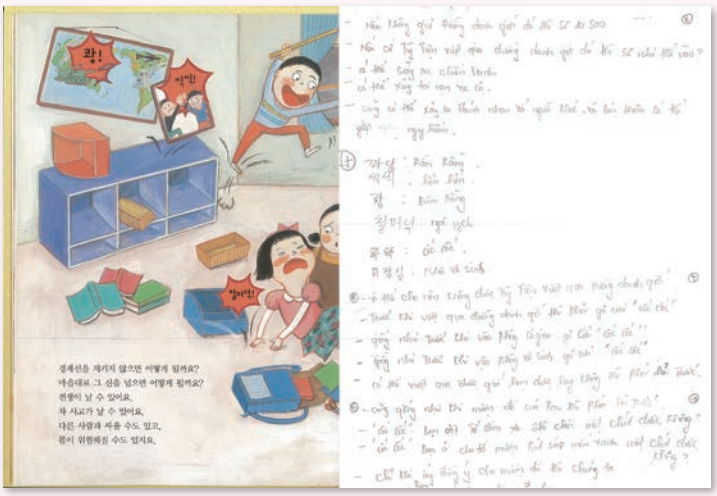
매주 한 번씩 모여 동화 번역 작업을 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

‘도란도란’(공식 명칭: 내 아이 안전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경계존중 동화책 번역 및 전자책 출판 사업 도란도란)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상담에서 시작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경계존중교육이다. 경계존중교육은 개인 간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성(性)이나 폭력 등 자녀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강한 교육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한국말도 서툴러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청소년희망플랫폼이 결혼이주여성을 교육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다. 엄마부터 알아야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들이 읽을 수 있는 경계존중교육 관련 도서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번역 작업은 이렇듯 필요에 의해 시작한 것이다.

원작과 비슷한 베트남어를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인간관계에도 번역과 해석이 필요하다

쯔엉 투하(31) 씨는 “아이가 친구에게 맞고 왔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죠. 맞고 온 애를 혼낼 수도 없고, 때리지 않아서 잘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라고 고백했다. 경계존중교육은 일상의 오해를 이해하고 싸움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낸다. 대표 서적으로 꼽히는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 저)는 주인공 준수가 좋아하는 여자 친구 지아를 껴안았는데 그 친구가 화를 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유물, 신체, 감정, 공간 등에서 다양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각자의 경계를 넘을 때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싸움이나 사고가 생기고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관련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가능한 것이 경계존중교육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전자책으로 배포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유용하고 손쉬운 교육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번역의 흔적이 노트에 고스란히 남았다.

번역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베트남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다르고 주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생략된 주어를 찾는 것이 큰 과제였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조사나

참가자들은 직접 번역한 동화를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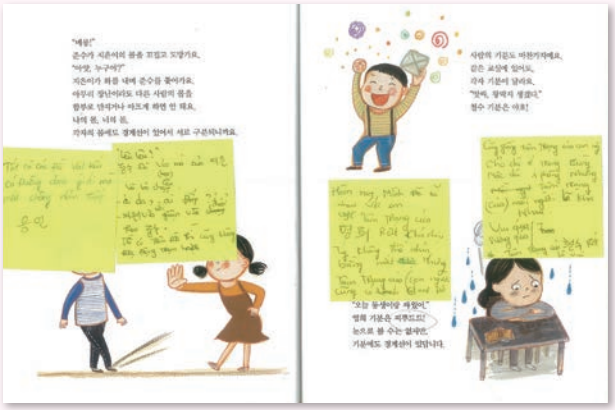
부사, 관형사 등을 해석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응원레티뛱찐(29) 씨는 "'영희 기분은 찌뿌드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찌뿌드드'를 베트남어로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1시간 동안 토론하기도 했어요"라고 말했다. 정서가 다르다 보니 의성어와 의태어를 표현해야 할 때 넘을 수 없는 언어의 벽을 느낀다. 또 베트남 남부와 북부 지역이 언어가 달라 베트남 각지의 사투리가 나올 때도 있다. 물론 엄마만의 강점도 분명 있다. 아이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의 눈은 누구보다 정확하다. 모임 이후 정해진 분량의 번역이 완성되면 베트남 전문 번역사의 감수를 통해 세밀하게 수정된다. 엄마들의 생동감 있는 번역에 전문가의 손길까지 더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 쯔엉 투하 씨는 "번역하면서 왜 이런 대화를 했는지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해석과 번역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라고 말했다.

언어를 넘어 일상 속으로

도란도란 프로그램은 번역 작업 이외에도 책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여성 인권 활동가가 젠더(gender)적 의미에서 경계존중과 필요성을 강의하고, 비폭력 대화 전문가가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라는 주제로 자신의 감정을 가족에게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대화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프로젝트의 주제인 경계존중교육은 아동의 올바른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경계를 존중하는 의식이 자리 잡으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으면 성폭력뿐 아니라 학교 폭력 등 모든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계존중교육은 근본적으로 생명존중교육의 가치를 담고 있다. 저자인 이현혜 교수는 "내 생명이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을 통해 알게 되고, 이런 귀한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희망플랫폼의 이혜지 팀장은 "프로젝트의 근본 목적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잘 융화되는 것이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 본인

스스로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비쳤다.

번역 도서는 전자책으로 출판해 다문화 가정 및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단순히 일회성 번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한 책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경계존중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한 그림책에 불과하지만 한국어와 모국어인 양국의 언어로 번역한 책을 엄마와 자녀가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큰 수확이다. 책 한 권으로 언어 소통도 하고 경계존중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번역한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응원레티뭑찐씨의 소감이 사업 의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최대 난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번역 작업 외에도 여성 인권과 비폭력 대화법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진다.

INTERVIEW

"언어와 문화 넘어선 플러스알파를 배우죠"

청소년희망플랫폼 이혜지 팀장

경계존중교육 관련 책을 선정한 이유는? 경계존중교육은 사람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합니다. 한국인은 가정에서 배우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닫는데, 결혼이주여성은 이 부분에서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죠. 경계존중교육은 서로의 경계를 지키고 선을 넘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교육과 폭력 예방도 아우르므로 인간관계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참가자의 반응은? 조금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기관에서는 대부분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는데, 여기서는 한국 사회에서 자주 접하는 행동 패턴이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깨닫기 때문에 1차적인 배움을 넘어선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도란도란 사업 진행 중 어려운 점은? 사업 참가자인 어머니들을 모이게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다들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께 아이를 부탁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매번 참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취업으로 이어지는 활동도 아니라서 주변의 이해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란도란 사업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참가한 어머니들이 공동 번역자로 기재되기 때문에 완성한 번역본이 나왔을 때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무척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1차적으로는 본인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전자책으로 배포해 다른 베트남 가정에도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두천시 착한일터 1호는 동두천시청이다.

동두천시청

“착한일터로 복지와 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미군 부대로 상징되던 동두천시가 복지 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동두천 공무원의 92%인 546명이 정기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착한일터 가입도 줄을 잇고 있다.

시작은 '희망나눔 행복드림'이었다. 희망나눔 행복드림은 지난해 7월 동두천시에서 자체 기획한 공무원 정기 모금 사업으로, 1계좌에 5,000원 이상의 정기 후원을 하는 것이다. 지역 복지 사업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 시책이었다. 이 사업은 동두천시 공무원 546명 가입을 시작으로 지난 4월 말 현재 정기 후원 2,008명, 일시 후원 968명으로 총 1억 8,700만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의 협업 제안으로 직장인 정기 기부자를 발굴하는 대표 프로그램 '착한일터'가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의 한 분야로 함께하게 되었다. 초기에 주를 이룬 개인 단위 정기 후원에서 2019년부터 사업장 단위 기부인 착한일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7월 기준으로 착한일터 40호가 탄생할 정도로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최용덕 동두천시장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며 "착한일터의 공동체 정신에 공감하며 임기 내에 100호 이상의 착한일터가 선정되는 것이 큰 바람"이라고 밝혔다.

1 행복마을 사랑 나눔은 '가가호호 일대일 결연'을 맺어 홀몸 노인 고독사를 예방한다. **2** 직접 조리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행복푸드상자(즉석국, 참치캔 등으로 구성)

복지 도시로 향하는 초석, 착한일터

착한일터는 5,000원의 기적을 보여준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돈 5,000원으로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20명의 직장인이 5,000원씩 정기 후원을 하면 3명의 결식 아동이 매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작은 힘을 모아 크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착한일터가 보여주는 것이다. 착한일터는 정기적인 기부 참여로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동두천시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사업장 인력의 70% 이상이 정기 후원을 할 경우 착한일터 가입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착한일터는 보통 5인 이상이 후원할 때 가입 조건이 충족되는데, 동두천시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호수 늘리기가 아닌 나눔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의도다. 동두천시는 은행과 관공서를 비롯해 공장, 어린이집, 컨트리클럽 등 급여가 발생하는 다양한 일터에서 착한일터 가입이 이루어졌다.

지난 7월에는 군 부대 최초로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맹호대대가 착한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대는 전체 간부 중 75%가량이 기부에 참여하면서 동두천시가 인증하는 37번째 착한일터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일부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시작한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선행을 독려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대대 간부 109명 중 82명이 정기 후원에 참여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동두천시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함께하는 일터다.

착한일터 가입이 줄을 잇고 있어서 지역 경기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동두천시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직접 종사자 2,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급속한 고령화에 재정 자립도 역시 경기도 최하위권으로 그다지 윤택한 상황은 아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 착한일터 가입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더 희망적이다.

1

2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맞춤 복지

착한일터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 사업, 의료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는 데 사용한다. 경기 북부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 안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희망나눔 행복드림과 착한일터 사업의 강점은 후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대상자에게 즉시 수급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복지 정책 사업은 행정 절차로 인해 신청 즉시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행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정기 후원자가 늘어나면 보다 좋은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두천시가 착한일터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다. 최용덕 시장은 "한 번에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10명의 직원이 5,000원씩 매달 6만 원, 1년에 70만 원의 금액을

어린이집의 착한일터 가입은 그 자체로 생생한 교육이 된다.

3

1 동종 업계 최초로 착한일터에 가입한 티클라우드CC. 직원 69명 중 67명이 정기 후원에 동참했다. **2** 자체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던 보산새마을금고도 지역 나눔에 동참하며 가입했다. **3** 군 부대 최초로 착한일터에 가입한 맹호대대

후원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분기별로 시장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다.

취약 계층 지원은 다각도로 이루어지는데, 수혜자의 눈높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특화 사업이 눈길을 끈다. '희망의 꿈나무 생일 축하 이벤트'는 생일날 선물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가정의 아동에게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케이크와 선물을 지원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것이다. 저소득 노인의 외출 지원을 위한 '실버카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실버카를 지원해 홀로 외출하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건강하게 운동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봉사자들이 장애인 1인 가구의 집을 방문해 주거 환경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서랍장 등 가구와 생필품을 구입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핀다. 이 과정에서 후원금의 100%를 동두천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불러온다. 복지는 이미 시대의 흐름이다. 복지의 기본 단위는 나눔이고, 이것이 잘 실현되는 곳이 착한일터다. 착한일터가 가장 많이 들어서고 있는 동두천시, 여기가 바로 복지 도시다.

INTERVIEW

"선행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공무원의 90% 이상이 정기 기부자인데, 특별한 철학이 있나? 시민에게 나눔을 권유하기 전에 '나는 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결과다. 동두천시 공무원의 대부분은 사랑의열매·천사운동본부·연탄은행의 후원자인데, 그 덕에 '나눔을 하라'는 지시 대신 '같이 하자'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나눔 운동을 이어가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억지로, 빼앗듯이 가입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강제 가입은 오래 지속되지도 않을뿐더러 불만을 가진 가입자가 있으면 수천 명의 착한 마음이 왜곡될 수 있다.

착한 가입식에 100% 참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성경〉에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현실 속 사람들은 나의 선행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일터도 급여도 다른 직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기 후원에 가입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가입식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 표현이다.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시민을 직접 만나는 것은 영광이고 감동스러운 일이다.

착한일터의 현장 반응이 좋은 이유는? 후원금을 다른 지자체에 보내지 않고 모금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다. 시민이 후원하는 금액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후원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전달하기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눔문화 확산, 왜 중요하다고 보는가? 많이 가져야 나눔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처럼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큰 부담 없이 어려운 이웃을 챙길 수 있다. 생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었다. 기부자에게도 한 술의 밥이 모여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한 가정의 행복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자긍심을 느낀 기부자는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이다. 나눔은 공동체 정신 회복과 지역 복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광주 도날드어린이집 원아들

광주를 지켜온 '더' 착한가게를 소개합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머니가 얇아졌다. 그럼에도 꾸준히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는 착한가게가 많다. 광주 사랑의열매는 착한가게 중 오랫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온 'the BEST 착한가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곳곳에 걸린 사랑 가득한 새 현판

'착한가게'란 사랑의열매를 통해 매달 3만 원 이상 일정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업종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 착한가게에 가입한 후 5년 이상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면 특별한 명칭을 부여한다. 'the BEST 착한가게'로 선정되는 것.

광주 사랑의열매는 2008년 8월 착한가게 1호점 가입을 시작으로 11년 사이에 2,751호를 돌파해 어느새 3,000호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주에는 2751곳 중 2015년에 가입해 지금까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110곳이 the BEST 착한가게로 선정되었다. 지난 5월, 광주 사랑의열매에서는 the BEST 착한가게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다. 장기 우수 기부자 예우 차원에서 원하는 가게에 한해 the BEST 착한가게 현판을 제작하기로 한 것.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110곳 중 80곳이 제작에 동의했다. 6월 중순 현판 제작 의뢰와 발주를 진행했고, 7월 2일부터 도날드어린이집, 즐거운약국, 대명크린, 낙지한마당, 도원빌까지 5곳을 시작으로 the BEST 착한가게 현판을 순차적으로 전달했다. 광주 사랑의열매 이성도 사무처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착한가게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와 함께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가길 부탁드린다"며 the BEST 착한가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디 내년에도 후년에도 새로운 the BEST 착한가게가 계속 탄생하길, 광주 곳곳에 나눔으로 반짝이는 새 현판이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왼쪽부터) 대명크린 직원, 광주 사랑의열매 이성도 사무처장, 대명크린 정진환 대표, 풍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권재환 위원장, 풍암동 김기현 맞춤형복지팀장이 the BEST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대명크린은 1차로 새 현판을 전달한 5곳 중 누적 기부액이 가장 많다.

the BEST 착한가게로 선정된 광주의 프로나눔러

대명크린 정진환 대표 (2012년 2월 21일 가입)

"2012년 광주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어 기부를 시작한 게 벌써 7년이나 되었네요. 착한가게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동참해준 대명크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 7년은 나눌수록 오히려 행복감으로 가득했던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즐거운약국 김정심 약사 (2012년 7월 19일 가입)

"the BEST 착한가게에 선정된 소감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 광주 사랑의열매의 홍보를 통해 우연히 착한가게에 가입했어요. 매달 습관처럼 기부해온 터라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약국 앞에 새 현판을 다니 기분이 새롭네요.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처럼 계속 착한가게를 이어가겠습니다."

도원빌 강승용 대표 (2014년 12월 20일 가입)

2014년 상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를 알게 되었어요. 착한가게를 통해 낸 기부금은 우리 지역을 위해 쓴다는 점이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the BEST 착한가게에 선정되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롭게 기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광주의 the BEST 착한가게 중 한 곳으로 모범을 보이고, 힘닿는 데까지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낙지한마당 이영현 대표 (2014년 12월 20일 가입)

"2014년 상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착한가게를 소개받고 가입했어요. 가입한 후 착한가게 현판을 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가게도 예전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착한가게를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새 현판을 다니 5년 전 처음 현판을 달았을 때 느낌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나눔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어요."

사랑의열매 대학생 서포터즈 '열매톡톡' 4기 발대식 현장

"톡톡 튀는 젊은 나눔이 시작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드디어 4기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 15인이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사랑의열매 사업 현장에 서포터즈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 나눔과 기부 현장에서
젊은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4기 대학생 서포터즈의 꿈과 끼를 한껏 기대해본다.**

위촉장을 전달받은 4기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와 김연순 사무총장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2019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발대식'이 있었다.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는 사랑의열매가 젊은 층의 톡톡 튀는 나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활기찬 나눔문화 이미지를 고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로 4기 서포터즈를 출범시킨 사랑의열매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는 이미 높은 경쟁률로 소문난 대표적 대학생 나눔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사랑의열매를 대표할 15인의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와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함께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양한 포토 타임과 응원 메시지 전하기 등으로 대강당은 젊은 활기로 뜨거웠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연순 사무총장은 "4기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사랑의열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사랑의열매를 보다 널리 알리는 경험의 장으로 마음껏 활동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4기 서포터즈 대학생의 직접 진행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면접 후 돌발 영상과 개별 소개 영상을 상영해 4기 서포터즈의 끼와 개성을 확인하면서 발대식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이어 새롭게 선발된 15인의 대학생 서포터즈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 4기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사랑의열매 나눔 현장을 체험하고, SNS 콘텐츠, 토크 콘서트, 플래시몹 등 다양한 나눔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다. 나눔 현장에서 펼쳐질 이들의 꿈과 끼의 젊은 에너지를 기대해본다. ♣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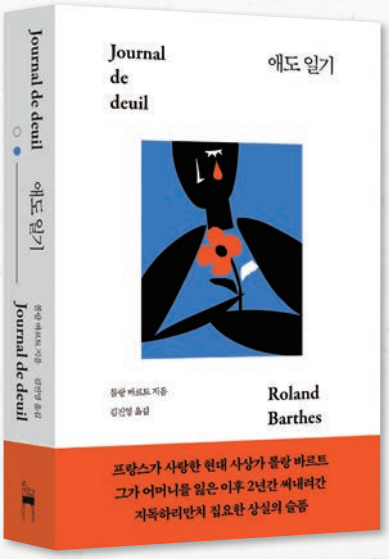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안내를 보자마자 이거다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나눔과 봉사는 바로 관심이에요. 꾸준한 관심만이 소외 계층이란 말에서
'소외'라는 단어를 지울 수 있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방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토크 콘서트를 꼭 해보고 싶어요!" **– 정해원(24)**

"2기 열매톡톡 활동 중에 프리허그가 있었어요. 그 활동을 보면서 거창한 것만이
나눔이 아니고 작은 포옹도 나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란 걸 알았죠. 작은 포옹 한 번처럼
나눔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란 사실을 이번 기회에 꼭 알리고 싶어요.
얼마를 나누었는지보다 무엇을 나누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 이성희(23)**

"대학에서 영상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을 만큼 영상 촬영이나 편집에 관심이 많아요. 열매톡톡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광고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전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정말
합격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영상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서 단순 봉사가 아닌 시각적인
메시지로 나눔과 봉사의 인식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 이충현(25)**

감정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 〈애도 일기〉(롤랑 바르트 지음, 김진영 옮김, 걷는나무)



슬픔이 희석되어 맹물 같아질 때까지

당신이 살아야 할 날이 창창한 젊은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내게 알렸을 때 나는 몹시 놀랐고, 무엇보다 당신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당신은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만 당신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잃는다는 건 립스틱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지요. 아마도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고통일 겁니다. 특히 어머니로서 품에 안고 기른 젊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감당할 상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지옥 불처럼 타오르는 고통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상상해봅니다. 죽은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은 뼈에 칼끝이 닿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낄지 모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함께 보낸 그 많은 세월의 추억 때문에 고통은 더욱 생생해지겠지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도 세상은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서 펼쳐 보여줍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빵집과 꽃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대에 도로는 자동차들로 뒤덮이고, 어쩌면 그렇게 무심한 세상을 향해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분노와 원망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슬픔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집에서 혼자 울부짖고,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오열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을 슬픔 안에서 견디는 일은 "애도의 온전한 강렬함 안에서" 슬픔을 실현하는 일이겠지요. 당신은 슬퍼할 이유가 있고, 슬퍼할 분명한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울어도 괜찮습니다. 슬픔 안에 내재된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슬픔이 더는 당신이란 존재를 흔들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섣불리 슬픔과 이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식초 원액 같은 당신의 슬픔이 희석되어 맹물같이 묽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이 다시 소생하길 기다리는 시간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사랑하는 어머니 앙리에트 벵제가 1977년 10월 25일 사망하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명석하고 냉철한 철학자는 처음엔 넋이 나간 상태와 의식이 마비된 상태를 겪으며 그 슬픔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일기처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날의 날씨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며 쓴 이 일기는 어머니가 죽은 날에 시작해서 2년 뒤인 1979년 9월 15일로 끝납니다. 그 2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이 〈애도 일기〉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쇠유 출판사에서 198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바르트는 이 슬픔을 "이 순수한 슬픔, 외롭다거나 삶을 새로이 꾸미겠다거나 하는 따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슬픔, 사랑의 관계가 끊겨 벌어지고 파인 고랑"이거나 "허우적거리면서 나는 겨우겨우 슬픔을 건너가는 길을 찾아나가도 있다"라고 씁니다. 이 슬픔은 존재를 집어삼키는 공격적 슬픔이고, 우리 내면의 창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화염 같은 슬픔입니다.

애도란 무엇인가요? 애도란 슬픔 속에 잠겨 깨지 않는 꿈을 꾸는 게 아닐까요? 바르트는 애도를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어떤 방어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갈 한 점의 의욕이나 의지마저 고갈된 채 웅크리고 있는 것,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갈 의지가 생기기만 기다리는 가망 없는 마음 상태. 많은 이가 그렇게 고통의 제물이 되어 죽어버린 마음이 다시 소생하기를 기다립니다. 파일 듯한 절망과 슬픔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그 메마른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세상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막막함, 혼자만 버려진 듯한 적막을 견디며 다시 살아나갈 용기와 의지를 지펴야 합니다. 애도의 시간은 그런 꺼져버린 가느다란 불씨를 지피는 아궁이가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상처받은 자는 그런 숨을 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온몸을 탈진시키는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 안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천지를 얼어붙게 만든 혹한의 계절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당장 참척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내 무력감이 염치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 처지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슬픔, 당신의 고통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당신이 이 애도의 기간을 잘 버텨내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할 뿐입니다. ♣

작가 장석주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동경해왔으며, 스무 살 때 시인으로 등단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시와 문학평론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 때로는 대학교수, 방송 진행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했으나 지금은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쓴 결과, 엮은 책이 100여 권에 달할 정도로 왕성한 글쓰기를 하는 문장 노동가다.

 | 글 이선희 **사진** 양양군, 인제군, 평창군, 삼척시, 속초시, 강릉시, 멍비치, 배바위카누마을 **참고자료**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볼매' 강원도로 놀러 오드래요~

강원도는 지난 4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강원도 여행은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또 다른 기부라는 사실.
나눔도 실천하고, 특별한 여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볼매' 강원도를 소개한다.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꼽히는 양양 죽도해변

PART 1

수상 스포츠의 짜릿한 즐거움에 풍덩~

동해안이 서핑 명소로 떠오르면서 서퍼는 물론 수상 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짜릿하고 시원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면 강원도가 제격이다.

20~30대 서퍼가 가장 사랑하는 양양 죽도해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수욕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양 '죽도해변'이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 좋은 해수욕장 1위로 나타났다. 또 20~30대 연간 방문율도 1위에 올랐다. 죽도해변은 깨끗한 백사장이 길게 펼쳐지고 수심이 얕으며 해변이 넓어 상급자는 물론 초보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괜히 서핑의 성지가 아니다. 개장하자마자 서퍼들로 붐빌 만큼 꾸준히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주소 강원도 양양군 시변리 12-4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버 버깅 인제 미산계곡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미산마을에는 내린천 상류인 '미산계곡'이 있다. 이곳에는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리버 버깅(river bugging)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리버 버깅은 급류를 이루는 계곡에서만 가능한 1인승 수상 레포츠다. 얼핏 래프팅이나 카누와 비슷해 보이지만, 노 대신 손발을 이용해 물살을 가른다는 점이 다르다. 바닥 면이 넓어 잘 뒤집히지 않아 초보자도 30분 정도의 강습을 받으면 급류를 타며 스릴 넘치는 리버 버깅의 재미에 빠질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문의** 033-460-2170

한국관광공사 추천 7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 홍천 배바위카누마을

강변에 우뚝 솟은 바위 2개가 커다란 배를 떠올리게 해 '배바위'라 부르는 곳. 마을 앞에는 수심이 깊지 않고 유속이 느린 홍천강이 흘러 카누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카누 체험 코스는 충의대교 밑에서 배바위까지 다녀오는 왕복 4km 구간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일반 카누, 투명 카누, 카약을 구비하고 있다.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일반 카누를, 강바닥을 보고 싶다면 투명 카누를, 연인끼리 얼굴을 마주 보고 싶다면 카약을 선택하면 좋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153-5 **문의** 010-2474-3011

PART 2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명소

**남들 다 가는 관광지는 뻔해서 싫다면 '숨은 명소'를 추천한다.
그동안 몰랐던 강원도의 새로운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드디어 공개한 절경 삼척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삼척시가 2014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길을 드디어 완공해 지난 7월 12일에 공개했다. 초곡 해안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애국가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동해 추암 촛대바위와 닮은 '초곡 촛대바위',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초곡용굴' 등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친환경 덱과 전망대, 광장 등을 갖춘 660m의 해안길을 조성하면서 앞으로는 숨은 비경을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36-20 **문의** 033-575-4605

65년 만에 열린 비경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

민간 통제구역이던 외옹치 해안이 지난 2018년 4월에 개방되면서 65년 만에 베일을 벗었다. '바다향기로' 역시 전 구간을 개방하며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 바다향기로는 속초해수욕장에서 시작해 외옹치 해안을 끼고 외옹치항까지 이어지는 1.74km의 해안 산책로다. 시원한 푸른 바다가 산책로 바로 아래 펼쳐지는 천혜의 비경을 드러내고, 각양각색의 바위에 부딪치는 청량한 파도 소리와 울창하게 자리한 해송들로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을 연출한다.

주소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712 **문의** 033-639-2544

한 달만 운영하는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 멍비치

양양 죽도해변 인근에는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 '멍비치'가 있다. 300m 해변길 중 150m를 애견 전용 구역으로 조성했다. 반려견이 바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모래사장을 맘껏 뛰어놀 수 있어 반려인들 사이에선 2016년 처음 개장했을 때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애견 해변 문화 정착을 위해 멍비치에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다. 방문 전 주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소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78-20
문의 http://cafe.naver.com/grayonhjj

PART 3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배우 박보검이 광고에서 부른 '별 보러 가자' 가사의 한 구절이다. 노래처럼 별 여행을 하고 싶다면 강원도가 제격이다. 별 쏟아지는 여름밤 낭만을 만끽해보길.

구름 위 마을에서 보는 빛나는 별 강릉 안반데기

해발 1,100m 고산지대에 자리한 마을이다. 떡메로 반죽을 내리칠 때 쓰는 오목하고 넓은 통나무 받침판인 '안반'을 닮은 평평한 땅('데기')이라 하여 '안반데기'로 부른다. 안반데기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높은 지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별명이 '구름 위 마을'이다. 우리나라 최대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으로 유명하지만, 최근엔 별 보기 좋은 명소로 입소문 나고 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제 모습을 드러낸다. 하늘에 빼곡하게 가득 찬 별 보는 재미에 밤새는 줄 모른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덕길 428 **문의** 033-655-5119

천상의 화원에서 즐기는 환상적 야경 평창 육백마지기

'육백마지기'는 평창의 남쪽에 있는 청옥산 정상 지대를 말한다. 해발 1,200m 고지대에 대관령처럼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크기가 밭 600마지기에 달한다고 해서 이 같은 별칭이 붙었다. 야생화가 가득 핀 풍경이 마치 천장을 떠올리게 해 '천상의 화원'이라고도 부른다. 밤이 되면 하나둘 초롱초롱한 별빛이 떠오르다가 이내 쏟아질 것처럼 하늘에 별이 가득 차고 마치 강물처럼 은하수가 흐른다. 낮과 또 다른 황홀하고 환상적인 야경에 푹 빠져 이곳을 방문하는 별 여행자가 많다는 후문이다.

주소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길 583-76 **문의** 033-330-2331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사랑의열매에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으로 총 164억 2,000만 원 성금이 모였다.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4월 30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35억 원을 지원하였다. 인명 피해, 주택 피해, 소상공인 피해 등 이재민 1,134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강원 사랑의열매는 피해 초기 약 1억 3,000만여 원의 온누리상품권과 고성사랑상품권을 산불 발생 초기에 긴급하게 지원했다. 성금 잔액은 강릉·속초·동해·고성 등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회

한국가스공사, 취약 계층 위한 성금 45억 원 기탁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2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사랑의열매에 상생 협력 사업 성금 45억여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참석했다. 이번 기탁식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한 열효율 개선 사업과 건설 기술 교육으로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건축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 열효율 개선 사업은 취약 계층의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도배, 장판, 창호 교체를 통해 난방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건축 아카데미를 수료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이 사업에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상생 협력 사업을 벌이게 된다. 채희봉 사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상생 협력 사업 모델을 만들어 확대해나가겠다.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열효율 개선 사업은 날씨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 가구와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 기관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지속적 나눔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국토 균형 발전에 따라 대구 혁신 도시로 이전해 지역의 대표 공공 기관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와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종료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후원 등 문화·예술 분야 후원과 온누리 장학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박영서 ㈜한국젬스 대표, 장용갑 ㈜화원약품 대표, 김순호 구례군수가 아너소사이티 가입식 후 사랑의열매 명예의 전당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구례 선후배 장용갑 대표와 박영서 대표, 아너 동시 가입

전남 구례 출신 (주)화원약품 장용갑 대표와 (주)한국젬스 박영서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동시 가입했다. 제약 원료 공급업체인 (주)화원약품의 장용갑 대표와 의약품 제조·마케팅·유통업체인 (주)한국젬스의 박영서 대표는 모두 구례 출신으로 고향 선후배 사이다. 서울에 올라와 성공한 두 대표는 향우회에서 만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얘기하던 중 지역 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하고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장용갑 대표는 "고향의 복지를 위해 기부하게 돼 기쁘다.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후배인 박영서 대표는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뷰티 크리에이터 씬님, '위안부' 할머니 위해 500만 원 기부

유튜브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로 160만 구독자를 거느린 씬님이 지난 18일 사랑의열매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씬님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사랑의열매 토크 콘서트에 재능 기부로 출연하며 사랑의열매와 첫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1,1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한 강원 산불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 500만 원을 기부하며 꾸준히 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씬님은 "현재의 여러 상황이 '위안부' 할머니들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걱정 어린 마음과 함께 소감을 말했다. 씬님이 이번에 기탁한 기부금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직접 생계비로 쓸 예정이다.

서울

애경산업, 36억 원 상당 생활용품 기부

애경산업(대표이사 이윤규)은 지난 4일 취약 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36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했다. 세제 및 화장품 등으로 구성한 기부 물품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서울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윤규 대표이사는 "어려운 이웃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일상 속 작은 나눔, 지하철 모금함 총 7,120만여 원 모금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두 달간 서울 지역 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지하철 모금함'을 수거하고 총 7,120만여 원을 모금했다. 모금함 수거 결과 5,150만여 원의 한화 및 외화가 나왔고,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및 환급금으로 1,970만여 원을 수거했다. 역사 중 타지 사람이나 해외여행객이 많은 서울역과 명동역의 모금액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신림역에서는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이 나왔으며, 공항철도 서울역에서는 일회용 교통카드 수거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삼계탕 나눔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정대영)이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전주시 금암노인복지관을 방문해 350여 명의 어르신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더워지는 날씨에 저소득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고, 나눔과 봉사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계획했다. 정대영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연합 모금 협약

전주시복지재단과 사랑의열매가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은 '전주사람'이 추진하는 긴급 복지 체계 마련과 동네 복지 활동가 양성, 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공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전주사람 유창희 이사장은 "전주시 복지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을 조성해 전주형 긴급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화첨단소재, 베리어 프리 캠페인에 1,200만 원 기탁

한화첨단소재(세종사업장장 김종남)와 한국교통장애인세종협회(회장 길현명)는 지난 4일 세종 사랑의열매 회장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화 베리어 프리 캠페인 1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 한화 베리어 프리 캠페인은 외부 활동 시 계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한화첨단소재에서 기탁한 1,200만 원으로 공공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홍성남 대표, 세종 나눔리더 18호 가입

지난 9일 개인 사업자 홍성남 대표는 세종 사랑의열매 사무실에서 나눔리더 18호 인증패를 받았다. '나눔리더'는 100만 원의 성금을 일시 또는 약정해서 기부에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홍성남 대표는 한 번에 100만 원을 완납하면서 회원 자격을 얻었다. 홍성남 대표는 "개인 사업이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과 관심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

(주)이월드, 2억 7,000만 원 상당 주얼리 기부

대한민국 1등 주얼리 기업 (주)이월드(대표이사 유병천)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 지원해달라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주얼리 1만 3,700여 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주)이월드는 1995년 설립한 이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18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유병천 대표이사는 "전달한 물품이 소외된 이웃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년 전국 기획사업 전달식 및 수행 교육 실시

지난 19일 대구 사랑의열매는 2019년 전국 기획사업 전달식 및 수행교육'을 진행했다. 2019년 전국 기획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및 사회문제 해결 다양화를 위한 사랑의열매 전국형 기획사업이다. 대구에서는 비 구직 NEET 청년지원 사업에 5억 원, 장애인 가족 돌봄 사업 1억 원, 임신출산 양육환경 지원 사업 1억 원, 사회복지종사자 보호 체계 구축 사업에 1억 원, 총 4개 사업, 6개소에 8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

희망 2019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 개최

지난 7월 10일 경남 사랑의열매는 웨딩그랜덤 2층 라벤더홀에서 관계자 22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희망 2019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식은 지속적인 기부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24개 기업과 단체, 37명의 개인 기부자 및 봉사자, 시군 공무원 14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모금회장상을 수여했다. 또한 나눔 활성화와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애쓴 시군에도 표창을 수여했다.

2019년 신청사업 수행기관 중간평가 및 워크숍

경남 사랑의열매는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2019년 신청사업 수행기관 중간평가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9년 신청사업 중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21개소로 각 사업의 담당자들이 모여 노인·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여성 다문화, 장애인 총 3개 분야로 분임 별 중간평가 및 슈퍼비전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회계지침 및 2018년 배분사업 우수기관의 우수사례 공유 시간도 가졌다.

부산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 발대식 개최

부산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22일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의 발대식을 했다.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립 교육, 배움 지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관계망 속에서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는 데 본 사업 목적이 있다.

BNK부산은행, 어르신 9,000명에게 삼계탕 지원

BNK부산은행은 7월 12일 초복을 맞아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광역시 노인회관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본 행사는 8월 11일 말복까지 지역 어르신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40여 개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이 진행하는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는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13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사회 공헌 활동이다.

제주

㈜네오플과 함께 하는 아동복지시설 차량 전달식

지난 18일 ㈜네오플(대표 노정환)은 제주도내 보육시설 4개소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차량 5대를 전달하는 '네오플과 함께 하는 아동복지시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차량은 각 보육 시설에서 다양한 아동 지원 활동과 각종 상담 및 업무에 사용된다. 또한 ㈜네오플은 지난해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으로 제주 사랑의열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제주삼다수 해피 플러스 공모 사업 사업비 전달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지난 16일에 '제주삼다수 해피 플러스' 공모 사업에 선정된 16개소에 사업비 3억 원을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 사랑의열매와 공동으로 제주삼다수 해피 플러스 공모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17억 6,600만여 원 상당의 57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총 3억 원의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강원

소규모 복지 기관 및 복권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교육과 전달식

강원 사랑의열매는 지난 3일과 4일 2019년 소규모 복지 기관 및 복권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 교육과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총 90개소 수행 기관에서 참가했다. 소규모 복지 기관 지원은 총 39개소 1억 4,682만 1,060원을 지원했고, 복권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억 4,000만 원 상당의 체험 학습과 신학기 물품을 총 51개소에 지원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 초복맞이 무료 급식 봉사

지난 11일 사랑의열매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초복을 맞아 석사 3지구 임대아파트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 활동은 독거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삼계탕과 계절 과일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2013년 창단한 이후 현재 회원 46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능 기부 봉사뿐만 아니라 연탄, 김장,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경기

대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5곳 단체 가입

지난 5일, 경기 사랑의열매와 군포시 대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과 나누는 착한가게 5곳의 단체 가입식이 있었다. 이날 가입식은 군포시 최초로 진행된 단체 가입으로 Cafe 1%, 신일룡의 호두파이, 카페스윗, 수리산 두꺼비, 행운 편의점 5개소의 대표와 대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이길우 대야동 주민센터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송산2동, 나눔리더 3명 동시 가입

의정부시 송산2동 안철환, 이종관, 한상근 기부자가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하는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12일에 진행한 기부식에는 안철환 · 이종관 기부자, 송산2동 복지지원과 이원선 과장,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이수철 팀장 등이 참여했다. 이원선 과장은 "불경기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세 분의 나눔리더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은 나눔리더가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 지역 가게 19개소,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

지난 18일 상주시청에서 착한가게 19개소 착한가게 신규 가입식 및 현판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착한가게 단체 가입은 상주시와 상주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이 상주 전역에서 펼친 홍보 활동을 계기로 상주 지역 가게 솔내음 실버빌 요양원 대표 외 18명이 나눔에 동참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신규 가입으로 상주에는 51개소, 경북에는 3,080개소 이상의 착한가게가 가입했다.

아너 회원의 날 및 신규 아너 회원 가입식

경북 사랑의열매는 7월 11일 안동에서 '2019 경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북의 아너 회원 현황과 경과를 보고하고, 2019년 경북 아너 회원 시상 및 신규 회원 가입식으로 진행했다. '2019년 올해의 경북 아너'에는 경북북부권역 개인 고액 기부 문화 활성화를 주도한 김점곤 아너가 선정되어 수상했다. 또한 청도 이서의원 남기정 원장이 경북 105호(청도 8호) 신규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광주

광주 아너 회원들, 무등육아원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

6월 26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무등육아원에서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회장과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회장 구제길) 회원 9명이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광주 아너 회원들은 이번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금전적 나눔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제길 회장은 "아너 회원들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주)금호주택 김명군 대표이사, 장학금 3,000만 원 전달

(주)금호주택 김명군 대표이사가 6월 24일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빛고을장학재단에 돌봄 이웃 장학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명군 대표이사,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군 대표이사는 "이 후원금이 지역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교육 복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

울산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위원 나눔리더 13명 동시 가입

2019년 7월 3일 울산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위원(위원장 이진용) 13명이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했다. 지난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의 가입을 시작으로 이번 모금분과실행위원 가입을 포함해 현재까지 30명이 가입, 기부하고 있다. 이진용 위원장은 "지역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문화를 함께 고민한 위원님들과 이렇게 나눔을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유화(주)가 기탁한 성금으로 사회복지 단체에 차량 전달

울산 사랑의열매는 지난 15일 '2019년 기획사업 사회복지단체 차량 지원사업'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차량지원사업은 2년째 연 20억 원의 기부를 이어온 대한유화 주식회사의 성금으로 이루어졌다. 사업 수행 기관 10개소에 총 2억 1,250만 원을 지원해 승합차 6대, 경승용 차량 4대를 구입했다. 대한유화 윤주원 공장장은 "이웃을 돕는 차량지원사업에 대한유화가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인천 아너 클럽, 어르신 삼계탕 봉사 활동 진행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최성규) 회원들과 인천 사랑의열매 임직원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저소득 노인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최성규 회장은 "작년에 이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 봉사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아너 회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나눔리더 릴레이 가입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동문의 나눔리더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동문 1기 5명의 단체 가입을 시작으로 나눔리더 가입자는 현재 19명까지 늘어났다.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으로 기부하는 개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고대영 기부자는 "인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인천대학교 대학원 동문과 뜻을 같이하고자 한다. 더 많은 동문이 가입하도록 안내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남

전남 아너 회원과 사회복지 현장 만남의 날

7월 8일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에서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사회복지 현장과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남의 복지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한 행사로, 아너 소사이어티 사업 경과 보고와 아너 지원 사업 사례 공유, 종합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복지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사랑의열매 허정 회장,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노동일 대표와 50여 명의 회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유공자 포상식 개최

지난 16일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유공자 포상식'이 열렸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지속적인 기부로 나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9명의 개인 기부자와 기업 기부자 2곳, 시군 공무원 12명 등 총 23명에게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전남 사랑의열매 허정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힘써주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광시한우거리 충남 두 번째 착한거리 지정

충남 사랑의열매와 예산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은 17일 착한가게 참여 식당 대표들과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광시한우거리 착한거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광시길한우타운, 내가조선의한우다, 또와정육점, 털보신흥식당, 나왔다정육식당, 조은한우식당, 동명식당, 골드한우식당, 비손한우암소마을, 고향정육점, 대가한우암소, 광시제일정육점, 예산CU광시점, 대성관전통중화요리, 카페규, 소풍가는날, 골드건재철물, 현대의원 등 18개소가 참여했다.

시티문화재단, 사회복지시설 놀이·문화 공간 조성 지원

지난 8일 시티문화재단(이사장 윤지연)과 시티건설(대표 정원철)은 충남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충남 도내의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 윤지연 이사장은 "미래의 우리 사회 주인공인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아동과 청소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놀이 문화 공간으로서 시티놀이터를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유한킴벌리(주) 충주 공장, 영·유아용 기저귀 681팩 기탁

유한킴벌리(주) 충주 공장(공장장 조경희)은 24일 영·유아용 기저귀 681팩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증했다. 기저귀 지원 사업은 유한킴벌리(주)의 대표 사회 공헌 활동인 '희망뱅크 지원 사업'이다.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으로 교환된 제품을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저소득 가구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증받은 기저귀는 10개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배분한다. 조경희 공장장은 "우리 충주 공장은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바자회 수익금 기부

지난 15일 충북연구원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모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5월 충북연구원의 개원 29주년을 맞이해 '공유와 나눔' 바자회를 열고 기부받은 애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직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나눔의 뜻을 함께하고 바자회에 참여해 십시일반 모은 금액이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전 사랑의열매, 2020년 배분 사업 설명회 개최

대전 사랑의열매는 지난 18일에 대전 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배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0년 배분 사업 기준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법,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대전 사랑의열매 배분 사업은 한 해 동안 대전 시민이 모은 성금으로 진행하며, 대전 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배분한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사회 공헌 업무 협약 체결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는 7월 18일, 대전 사랑의열매와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동시에 조수영 회장은 나눔리더에 가입했고, 임원들은 정기 기부 단체 가입을 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이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적극 동참하면서 이루어졌다. 조수영 회장은 "본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현재 지원 중인 장애인 치과 치료 및 보철 사업에 더 많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겨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부산 171호

안병호 (주)누리아이코리아 대표이사
"배려와 나눔 긍정의 에너지 공유"

부산 172호

김하라 주식회사하라물류 상무이사
"We rise by lifting others."

부산 173호

안현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부산 174호

이문환 영도조선(주) 대표이사
"내가 받은 은혜를 주위에 나누다."

경북 105호

남기정 이서의원 원장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의 즐거움과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서울** 배해숙 (주)앤텍컴 감사
- **광주** 박성진, 정동열 정동열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경기** 박준수 버팀병원 원장
- **전남** 박영서 (주)한국젬스 대표이사, 장용갑 (주)화원약품 대표이사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 호 독자 의견

지독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소년 시절, 절박했던 중년 시절을 병마와 싸우면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낸 안성우 대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마트의 사장에게 500만 원을 빌려 시작한 구멍가게를 열심히 운영해 고통의 나날들을 이겨내며 마침내 마트법인의 대표가 되었죠. 자신도 형편이 되면 남을 돕고 아너 소사이어티가 되겠다는 결심과 함께 사랑의열매에 기부함으로써 나눔과 베풂을 몸소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나눔은 참으로 아름답고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덕목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 부산시 북구 배종만

작은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넓은 바다가 되듯이, 아주 작은 손길이 모이고 모여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나아가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훈훈한 나눔 소식과 봉사활동을 하시는 사진 속 모든 분의 미소가 제 마음을 행복 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나눔을 실천하시고 계시는 모습에 내내 감동을 받으며 초라한 제 자신을 반성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기분 좋은 나눔 이야기가 더 많이, 더 자주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
– 경기도 부천시 배수빈

올해는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라 집이나 집 근처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추천해주신 책들과 함께 '북캉스'도 즐기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좋아하는 작가인 김별아 씨의 〈도시를 걷는 시간〉과 조원재 작가의 〈방구석 미술관〉이란 책에 특히 마음이 끌리네요. 휴가 동안만이라도 지금껏 잡고 있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책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 서울시 관악구 이정숙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머그컵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일러스트를 담았습니다. 총 네 가지 디자인으로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머그컵

에코백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 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다수나눔
소중한 다수의 기부

소다수나눔 가이드

소다수 나눔 캠페인은 '소중한 다수의 기부'라는 의미로 경쾌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를 맑고
청량하게 만들어 가자는 전 국민 기부 캠페인입니다.

착한일터

직장인이 매달 급여에서
약정한 기부금이 자동으로 이체

착한가게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월 3만원 이상 정기 기부

착한가정

가족구성원이 함께
2만원 이상 정기 기부

착한기부(CMS)

개인이 약정한 기부금이
매월 자동으로 이체

사랑의열매, 행복한 여름을 부탁해